

이용세 목사의 <유다서>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막을 수 있다

이용세 목사의 <유다서: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막을 수 있다> 1강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막을 수 있다 :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

유다서 1장

오늘의 포인트

1. 유다서의 배경과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2. 유다서의 주요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
3. 유다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유다서의 배경과 상황

- a.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이다
- b. 수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 구약에 대한 방대한 인용을 볼 때
 - 수신자는 구약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 신자일 것으로 추측됨
- c. 정확한 기록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다
- d.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다

유다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 1) 꿈(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 2) 그들의 계시가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 3) 교만하여 주의 권위를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 4) 자신의 이익과 돈을 사랑한다
- 5) 정욕대로 사는 불경건한 삶을 산다
- 6) 진짜 신자인 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를 분열시킨다
- 7) 성령이 없는 가짜 신자이다
- 8)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

- a. 기록 목적: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 b. 주제: **진짜(바른 진리)를 알면 가짜(거짓 진리)를 막을 수 있다**

1. 유다서의 서두

유다서 1장 1~2절

(1) 발신자와 수신자 (유 1:1)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a. 발신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이다

-야고보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1) 발신자와 수신자 (유 1:1)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b. 수신자는 보편적인 성도이다

- 1)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 2)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2) 인사와 축원 (유 1:2)

-유다서 1장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a. **긍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를 용서하거나
곤경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는 것
- b. **평강**: 긍휼을 얻은 자에게 오는 내적 자유와 평안
- c.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애정과 열심

2. 편지를 쓰는 이유

유다서 1장 3~4절

(1)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 1:3)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 a. '일반적인 구원'은 정통의 구원을 의미한다
- b. '믿음의 도'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17)이다

(2) 믿음의 도를 어지럽히는 자들 (유 1:4)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 a. 싸워야 할 대상은 거짓 신자들이다
- b. 과거에도 거짓 신자들은 '이 판결(심판)'을 받았었다
- c.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다

3.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유다서 1장 5~16절

8가지 심판의 사례를 열거하는 이유

- 1)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 2)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 3) 심판받은 자들과 거짓 교사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 4) 거짓 교사들의 상태와 행함이 심판받은 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 5)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받을 죄를 멀리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 애굽,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유 1:5~8)

a. 출애굽 한 뒤에 믿지 않은 자들 (5)

b. 처소를 떠난 천사들 (6)

c. 소돔과 고모라 (7) - 육체를 따라갔다

⇒ 육체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의 영광을 비방했다

유다서 1장 5~7절의 적용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 a.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 b.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

(2) 천사장 미가엘 (유 1:9~10)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사탄의 입장 대조
⇒ 천사장보다 더 나은 자처럼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

유다서 1장 9절의 적용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 a.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비방했다
- b. 그들은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

(3) 가인, 발람, 고라의 심판 (유 1:11~13)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a. 가인은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b. 발람은 돈에 매수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꾀었다

c. 고라는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고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다

⇒ **탐욕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유다서 1장 11절의 적용

-유다서 1장 12~13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 a. 거짓 교사들은 경외심 없이 성만찬을 먹어 의미를 훼손시켰다
- b. 그들은 알맹이 없이 허세로 가득한 자들이었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15절

(4) 에녹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적용 (유 1:14~16)

- a.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를 낳은 후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였다
 - b. 그는 300년간 '경건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을 거슬러 한 완악한 말이 정죄 받는'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
 - c. 므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였다
- ⇒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

유다서 1장 14~15절의 적용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 a. 거짓 교사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침한다
- b.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에녹 때부터 심판하고자 하셨다

4.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

유다서 1장 17~23절

(1)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유 1:17~19)

-유다서 1장 17~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 a. 사도들은 '경건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다
- b.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세 가지 특징

- 1) 거짓 교사는 분열을 일으킨다
- 2) 거짓 교사는 '육에 속한(프쉬키코스) 자'이다
 - 성령을 받지 못한, 정욕과 본능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의미한다
- 3) 거짓 교사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불의한 행위에 의해서 증명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21절

(2) 경건한 신앙을 위한 권면 (유 1:20~21)

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사도가 전해준 믿음, 곧 복음을 의미한다

- '세우다(에포이코도메오)'는 '~의 기초 위에 집을 짓다'는 뜻이다

② 성령으로 기도하라

-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라는 의미이다

③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④ 긍휼을 기다리라

- 재림의 날에 성도에게 베푸실 긍휼을 기다리라는 의미이다

(3)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유 1:22~23)

-유다서 1장 22~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 a. 의심하는 자(미혹을 받아 복음에 회의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 b. 불 가운데 있는 자(정욕과 죄에 빠진 자)를 끌어내어 구원해야 한다
- c. 거짓 가르침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5. 송영

유다서 1장 24~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25절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2.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준다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나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확실히 알아가고 있는가?

이용세 목사의 <유다서: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막을 수 있다> 1강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막을 수 있다 :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

유다서 1장